
역사서술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만들어내다: 흐루셰프스키의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우크라이나 정체성*

한 정 숙**

- 개요 -

이 글은 미하일로 흐루셰프스키의 역사서술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 문제, 특히 동슬라브인의 역사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문제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삽화로 보는 우크라이나의 역사(Ілюстрована Історія України, 1911년;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1913)』, 줄여서 『우크라이나의 역사』이다. 이를 위해 20세기 초까지 우크라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상반된 논의의 흐름을 살펴본 다음 흐루셰프스키의 역사학 형성과정과 특징을 삶의 궤적 속에서 개관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그의 우크라이나사 해석의 중요한 특징들을 짚어보았다. 이 책에서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비잔티움-몽골-리투아니아-폴란드 등 여러 외국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으로 존속해 온 민족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문화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정교에 두고 있지만 이를 러시아 정교회와는 완전히 구분하여 다루었다. 러시아 제국의 지배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독자성은 언어적 독자성에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또한 코자크 집단을 민족정체성을 수호해 온 핵심집단으로 다루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자적 존립론과 관련하여 강력한 목적론적 견해를 제시한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그는 ‘흐루셰프스키식 우크라이나 민족’을 형성해 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제 어: 흐루셰프스키, 『우크라이나의 역사』, 우크라이나 정교,
우크라이나 코자크, 우크라이나 민족정체성

* 이 연구는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논문의 보완에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의 지적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이 글은 미하일로 세르히오비치 흐루셰프스키(Михаило Сергіович Грушевський, 러시아식으로는 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Грушевский, 1866-1934)의 역사 서술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 문제, 특히 동슬라브인의 역사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차지하는 위치 문제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우크라이나 민족담론이 러시아적 정체성인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자적 정체성인가를 두고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역사연구와 서술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흐루셰프스키는 방대한 학문적 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 민족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며 특정한 영토적 범위를 가지는 독자적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데 주력하였던 역사가였다. 그는 1917년 2월 혁명 후 우크라이나 중앙라다의 의장으로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를 이끄는 정치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가성(國家性)의 중추적 인물이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그의 논의는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지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학문적 저작은 그 양과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오랫동안 소홀히 취급받았다.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 밖에서는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다.¹⁾ 반면 1991년 말 소련해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정식으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는 독립국가가 된 후 그는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있다.²⁾ 1998년에는 르비브에서 흐루셰프스키의 옛

1) 1941년에 출판된 『삼화로 보는 우크라이나의 역사』 영역본은 예외였다. 이 같은 사정은 소련 말기인 1980년대 후반에 어느 정도 바뀌어, 흐루셰프스키에 대한 연구서들이 잇따라 출판되었다. Thomas M. Prymak(1987) *Mykhailo Hrushevsky: The Politics of National Culture*,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Lubomyr R. Wynar(1988) *Mykhailo Hrushevsky: Ukrainian-Russian Confrontation in Historiography*, Toronto; New York; Munich: Ukrainian Historical Association.

2) 일반 우크라이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서 흐루셰프스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크라이나인 중 6위로 손꼽혔다. “Famous Ukrainians of all times”, <http://ratinggroup.com.ua/en/products/politic/data/entry/14005/>(검색일: 2014.11.12).

저택을 개조한 기념박물관이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정식 지위를 얻었고 2006년에는 키예프에서도 유셴코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석 아래 흐루셰프스키 국립박물관이 문을 열었다.³⁾ 그의 저작들이 새로 편집, 출판되기 시작하였고,⁴⁾ 그의 저작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⁵⁾ 또한 그의 주요저작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국어로의 번역도 이루어지고 있다.⁶⁾ 이제는 역사학 분야의 한 중요한 저자로서뿐 아니라 현실정치적으로 중

3) 관련자료들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르비브의 흐루셰프스키 기념박물관:

<http://www.karpaty.info/en/uk/lv/lw/lviv/museums/hrushevsky>(검색일: 2014.11.10).

흐루셰프스키 박물관 개관식과 대통령 참석 관련:

<http://www.president.gov.ua/en/news/4589.html?PrintVersion>(검색일: 2014.11.10).

키예프 흐루셰프스키 박물관 사이트:

http://www.kartka.com.ua/dovidnik/kultura/musei/museej_grushevskogo(검색일: 2014.11.10).

키예프의 흐루셰프스키 박물관 웹사이트는 흐루셰프스키를 ‘독립 우크라이나의 첫 대통령’으로 칭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4) 우크라이나에서는 그의 저작들을 인터넷 문서고로 만드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사이트들을 참조하십시오. <http://chtyvo.org.ua/authors/Hrushevskyi>; <http://www.m-hrushevsky.name/en/History.html>.

5)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밖에서도 흐루셰프스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rank Sysyn(2001) *Mykhailo Hrushevsky: Historian and National Awakener*, Heritage Press; Serhii Plokhy(2005) *Unmaking Imperial Russia: Mykhailo Hrushevsky and the writing of Ukrainian history*, Toronto;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Łukasz Adamski(2011) *Nacjonalista postępowy. Mychajło Hruszewski i jego poglądy na Polskę i Polaków*, Warszawa: Wydawnictwo Naukowe PWN; Georgiy Kasianov and Philipp Ther(eds.)(2013) *A Laboratory of Transnational History Ukraine and Recent Ukrainian Historiography*, Budapest; 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6) 흐루셰프스키의 가장 방대한 저작 『우크라이나 루스의 역사(Історія України-Руси)』는 우크라이나 바깥에서 가장 활발한 우크라이나 역사 연구의 중심지가 되어 왔던 캐나다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Mykhailo Hrushevsky (1997-2010) *History of Ukraine-Rus'*, 10 volumes(in 12 Books) translated by U. M. Pasicznyk et al., Edmonton: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 Press. 이 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한 연구자가 서평을 겸한 소개를 한 적이 있다. 구자정(2009) 「“우크라이나-루스의 역사(Istoriia Ukrany-Rusy)” 미하일 흐루셰프스키(Mykhailo Hrushevsky)」, 『중소연구』 33:4, 223-228쪽.

요한 의미를 가지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역사적 지도자로서 그의 저작을 정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의 저작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삽화로 보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아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라고 칭한다)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사에 대한 그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우크라이나어본 (*Ілюстрована Історія України*)은 1911년에, 러시아어본(*І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은 1913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후 여러 차례 증보되어 출판되었다.

아래에서는 그의 역사해석이 가지는 중요성을 가늠하기 위해 우선 20세기 초까지 우크라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상반된 논의의 흐름을 살펴본 다음 흐루셰프스키의 역사학 형성과정과 특징을 삶의 궤적 속에서 개관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그의 우크라이나사 해석의 중요한 특징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2.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여러 논의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국과 소련 지배 아래 있던 동안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엄밀히 구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폴란드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지배 민족과 피지배민족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집단적 정체성 구분에서 종교가 절대적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루스(우크라이나)인 대부분이 믿었던 비잔티움적 정교와 폴란드 사회를 특징지었던 로마 가톨릭은 두 민족을 구분하는 지표로서 큰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 시기에 적지 않은 우크라이나 엘리트층 구성원은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지배민족에 동화되어갔고 그들은 옛 루스 사회와 자연스럽게 단절되었다. 그 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시기부터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들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민족인지에 대해 우크라이나인들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우선 우크라이나라는 명칭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것이었다. 12세기에 연대기에 처음 등장했으며 폴란드 지배 시기에는 폴란드와 타타르 사이의 변경지대를 가리키는 용어이던 이 말을 일부 지식인들이 19세기 전반부터 민족을

칭하는 말로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그 확산속도는 느렸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종교적 공통성(정교),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의 유사성(공통의 문자), 공통의 국가적 기원론을 뒷받침해 준 연대기가 확실한 구분을 어렵게 하였다. 러시아는 대러시아인, 소러시아인, 백러시아(벨라루스)인이라는 분리할 수 없는 세 형제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집단이 이른바 삼지동체(三枝同體) 러시아 민족(триединый русский народ)이라는 통일체를 이루며 언어적으로도 단일한 러시아어를 표준어로 한다는 주장이 러시아제국의 공식적 민족담론이었다.⁷⁾ 거슬러 올라가면 타티시체프의 역사서술이나 니콜라이 카람진이 1816년부터 출간하기 시작한 방대한 『러시아 국가의 역사(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도 모두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⁸⁾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 가운데 한 갈래인 소러시아인으로 불렸는데, 소러시아, 소러시아인이라는 말이 비하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⁹⁾ 다른 아닌 보흐단 흐멜니츠키

7) 이 주장은 19세기 전반 니콜라이 우스트랴로프가 체계화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제국정부의 문교대신인 우바로프가 주창하던 관변 슬라브주의와 부합하였으므로 정부의 열렬한 지원을 받았다. 이어서 세르게이 솔로비요프, 바실리 클류체프스키와 같은 19세기의 가장 영향력 큰 역사가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Stephen Velychenko(1992) *National History as Cultural Process: A Survey of the Interpretations of Ukraine's Past in Polish, Russian and Ukrainian Historical Writings From the Earliest Times to 1914*, Edmonton: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 Press, pp. 98-104.

이 같은 주장은 흐루셰프스키의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민족’론을 반박한 러시아 제국의 보수적 친슬라브주의 역사학자 니콜라이 파블로프의 글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 Н.М. Павлов(1905) “Ученый труд господина профессора Грушевского ‘Очерк истори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http://www.ukrstor.com/ukrstor/pavlov-ocerkgrusevskogo.html>(검색일: 2013.09.20). 파블로프의 이 글은 1905년 하르키프의 보수적 잡지인 『평화로운 근로(Мирный труд)』지에 처음으로 실렸고 그 후 별도의 소책자로 간행되었다.

8) Velychenko(1992), 88-91.

9) 소러시아 혹은 소러시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교회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 정교의 총본산이었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는 14세기에 할리치나 수도대주교구를 건설하면서 콘스탄티노플에 더 가까운 할리치나 수도대주교구를 소(小)러시아(Μικρά Ῥωσία) 교구, 더 멀리 있던 모스크바 교구를 대(大)러시아(Μεγάλη Ῥωσία) 교구로 불렀는데, 그것은 키예프 교구에서 비롯된 루스 교회가 모스크바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명칭이었다. Dmytro Doroshenko and Oleh Gerus(1984) *A*

도 모스크바국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이끄는 정치체를 가리키는 데 소러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였다.¹⁰⁾ 범박하게 일반화하자면 우크라이나라는 명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구분을 강조하는 데 비해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서 소러시아라는 명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동질성을 더 중시하는 명칭이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지배제급 일부는 소러시아-소러시아인이라는 명칭을 기꺼이 받아들여 소러시아인으로 자칭하면서 제국 상층부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존재에 자족하였을 뿐 아니라 때로는 전러시아인의 통일을 위한 담론구축에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실 17세기 후반 동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국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성직자들이 주도적 담론 제공자의 역할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을 정교라는 동일한 종교를 신봉하는 루스 사람들의 통일로 보았으며, 키예프 동굴 수도원에서 씌어진 『개요(시놉시스, Синописис)』는 그 같은 담론으로 오랫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¹⁾ 동슬라브 민족들이

Survey of Ukrainian History, Winnipeg: Humeniuk Publication Foundation, p. V; Paul Robert Magocsi(1998) *A History of Ukrain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 68.

10) Zenon E. Kohut(2003) “The Question of Russo-Ukrainian Distinctiveness in Early Modern Ukrainian Thought and Culture”, in A. Kappeler, Z. E. Kohut, F. E. Sysyn, and M. von Hagen(eds.) *Culture, Nation and Identity: The Ukrainian-Russian Encounter, 1600-1945*, Edmonton; Toronto: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 Press, p. 70.

11) 고슬라브 문자로 씌어진 『시놉시스』는 1674년에 키예프의 동굴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고 1678년에 재판, 1680년에 삼판이 출판된 후 1681년에 수도원장인 이노켄티 히지엘(Іннокентій Гізіл)의 이름으로 증보판이 출판되었다. 이 문헌의 저자는 그 이래 히지엘로 알려져 왔으나 확실치 않다. 이 책은 키예프가 이슬람적 오스만 투르크와 가톨릭적 폴란드의 지배 위협에서 벗어나 정교적 모스크바 차르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 역할을 해왔다. 『시놉시스』에서 개진된 ‘슬라브-러시아’ 민족(славенороссийский наорд)론에 대해서는 A. B. Соловьёв(2002) “Великая, Малая и Белая Русь”, A. Ф. Литвина и Ф. Б. Успенский(сост.)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Киевская и Московская Русь*, Т. 2, Кн. 1, Москва: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С. 494; Serhii Plokhly (2006) *The Origins of the Slavic Nations: Premodern Identities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59-266를 참조하시오.

하나의 통일체라는 주장도 17세기 동부 우크라이나의 성직자였던 페오판 프로코포비치가 폴타바 전투에서 승리한 러시아 차르 표트르 1세에게 바친 찬사 속에서 체계화한 것이었다.¹²⁾ 18세기에 러시아 제국에서 이 같은 담론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러시아 국가 중심적 역사인식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쳤다.¹³⁾

19세기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민족담론은 근대민족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몇 갈래로 나뉘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동유럽의 여러 민족에게 민족의식 각성의 시기였다. 폴란드처럼 일찍이 강국을 이루었다가 망국의 비극을 겪은 민족은 물론이고, 체코, 슬로바크,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인들처럼 독자적인 국가적 존립의 기억이 좀더 먼 민족들 사이에서도 민족의 소생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 국가를 이루거나 최소한 민족의 문화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민족의 당연한 과제로 여겨졌다. 민족의 소생은 먼저 민족의 형성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우선 민족이 누구이며, 민족의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특징은 무엇인지 탐구하는 민족 엘리트층의 작업이 이루어졌다.¹⁴⁾ 이를 위한 지적 활동은 한편으로는 민족을 이루는 민중의 삶과 그들의 언어에 대한 애정에 바탕을 둔 민속학적, 언어학적 작업으로 나아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과거를 탐구하는 역사

12) Ploky(2006), 270-277; Myroslav Shkandrij(2001) *Russia and Ukraine: Literature and the Discourse of Empire from Napoleonic to Postcolonial Times*, Quebec: McGill-Queen's Press, p. 9. 현대 우크라이나 학자들도 이를 인정한다. С. В. Синяков (2011) “Українська історія як простір сучасного творчості”, *ВІСНІК НТУУ —КПІ. Філософія. Психологія. Педагогіка*. Вип. 2, С. 151.

13)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제정 시대 말기 러시아 역사학의 대표적 개설서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플라토노프는 17세기 중반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이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된 것을 두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스크바는 루시가 오래전에 상실한 루시 땅을 획득하였다.”, “1667년 폴란드와 모스크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안드루소보 휴전에 따라 좌안 우크라이나는 영구히 모스크바의 것이 되었다.” 세르게이 표도로비치 플라토노프(2009) 『러시아사 강의』 1, 김남섭 옮김, 나남, 747, 749쪽.

14) 근대유럽사에서 이루어진 민족형성 과정의 구조에 대해서는 Miroslav Hroch (1996) “From National Movement to the Fully-Formed Nation: The Nation-Building Process in Europe”, in G. Eley and R.G. Suny(eds.)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60-69의 개관을 참고로 하였다.

학적 작업으로 나아갔다. 민족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 제 1단계(Phase A)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제 2단계(Phase B) 활동이 전개되었다.¹⁵⁾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민족적 각성이 일어났다. 단 19세기 전반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적 각성은 우크라이나인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르키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친(親)우크라이나주의(우크라이나 애호주의, украинофильство)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문화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19세기 내내 우크라이나 지식인들과 일부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었으며, 이 경향의 옹호자들은 정치적 요구를 내걸지는 않았다.¹⁶⁾ 또한 키예프를 중심으로 하여 1845년부터 1847년 봄까지 존속한 성 키릴-메포디(키릴로스-메토디오스) 형제단은 우크라이나 최초의 근대적 정치결사라는 점에서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이 단체의 정치적 요구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자체라기보다, 범슬라브주의의 틀 속에서 러시아제국의 개혁적 재편성을 이루어내고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위 향상을 꾀하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해방적-자유주의적 범슬라브주의의 큰 틀 속에서 모든 슬라브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연방을 구성하고자 했다.¹⁷⁾

반면 우크라이나 엘리트층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러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추종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를 실리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루스인의 통합’이라는 과제에 대러시아인 못지않게 진심으로 열중하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있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계는 사실 상당히 모호하였고 우크라이나 지식인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분리주의’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비판하였다. 보흐단 흐멜니츠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통일을 가능케 했으니 이를 기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의 동상 건립을 주도했던 유제포비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¹⁸⁾

15) Hroch(1996), 63, 66.

16) Ploky(2005), 19-20.

17) 성 키릴-메포디(키릴로스-메토디오스) 형제단의 이념과 활동에 대해서는 한정숙(2004) 「키릴-메토디우스 형제단과 근대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체성 - 형제단 지식인들의 담론 구성을 중심으로 -」, 『러시아연구』 14:2, 389-430쪽을 참조하시오.

18) 미하일 유제포비치(Михаил Владимирович Юзефович, 1802-1889)는 우크라이나

이 같은 담론 배치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정체성과 관련하여 양쪽에서 모두 담론이 축적되었고 양쪽 모두 잠재적 역량을 쌓아갔다. 미리 정해진 것은 없었다. 어네스트 켈너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민족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동력과 그 구조를 고찰하면서 ‘민족들의 욕구가 민족주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창출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모든 경우에 부합하는 규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어서 “물론 기존의 문화적 차이가 이에 일조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민족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정확히 어떤 ‘민족’들이 출현할지 자신 있게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썼다.¹⁹⁾ 19세기 말-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런, 어떤 민족이 될 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갈림길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민족정체성과 정치적 자율성을 천명하고 나서는 선명한 담론이 등장한다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당연히 깊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국가적 자립의 경험이 있고 국가 운영의 주체였던 집단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이 문서고 자료에 바탕을 둔 실증적 역사연구에 바탕을 두고 개진된다면 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 담론에 더욱 큰 신뢰를 보낼 가능성이 컸다.

이렇게 하여 역사연구에 바탕을 둔 민족 독자성 담론이 민족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상위주체였던 제국이 붕괴하고 제국의 가치가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대중 사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민족적 독자성론이 확산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1917년 2월 혁명 후 우크라이나 군중 사이에서 자치 자율을 향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데는 이 같은 민족담론의 뒷받침이 있었다.²⁰⁾

폴타바 출신의 귀족, 교육행정관료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독자성론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화를 강력하게 희망하였다. 유제포비치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에 반대하여 펼친 활동에 대해서는 А.И. Миллер(2000) *Украинский вопрос в политике властей и рус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здательство «Алетейя», С. 43, 171-178 등을 참조하시오. 밀레르는 1876년 알렉산드르 2세 황제가 우크라이나어 출판물 금지를 명령하는 내용으로 내린 엠스 칙령이 유제포비치의 발의에 따른 것이라고 쓰고 있다. Миллер(2000), 43.

19) 어네스트 켈너(1981) 「근대화와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백낙청 엮음, 창작과 비평사, 160쪽. 번역문장은 글쓴이가 약간 수정하였다.

20) 이는 흐로흐가 말한 민족운동의 제 3단계, 곧 대중운동 단계에 대략 상응한다고

3. 흐루셰프스키의 생애와 역사학

흐루셰프스키는 1866년 9월 17일 러시아제국의 홀름(Холм, 현재는 폴란드 영토이며 헤움Chełm이라 불린다)에서 태어났다.²¹⁾ 부계는 가난한 성직자 집안²²⁾이었고 어머니 흘라피라의 친정인 오포츠크비치 집안 역시 키예프 지방에 근거를 둔 성직자 가문이었다. 아버지 세르히 페도로비치는 교육자이자 어학자였는데 자신이 쓴 교회슬라브어 교재에서 나오는 인세 덕분에 미하일로로 비롯한 삼남매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성장기 미하일로의 언어는 러시아어였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러시아 문법을 가르쳤고 미하일로는 러시아 문학작품을 탐독하는 청소년으로 자라났다.²³⁾

아버지가 1869년부터 초등학교 장학관으로 카프카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미하일로는 유년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의 카프카스 지방에서 보냈다.²⁴⁾ 세르히 흐루셰프스키는 언어, 민요, 전통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적인 모든 것에 깊은 애착을 가져서 이를 아들에게도 자주 들려주곤 하였고, 이를 통해 미하일로에게 어린 시절부터 ‘우크라이나의 민족감정(національне українське почуття)’을 길러주었고 미하일로는 멀리 있는 ‘조국(відчина)’에 대한 그리

할 수 있다(Hroch 1996: 63, 66-68).

- 21) 흐루셰프스키의 생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그가 1906년과 1926년에 직접 작성한 자서전(Автобіографія)이다. 분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자 자신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가장 귀중하다. 그 외에도 흐루셰프스키의 생애와 학문세계에 대해서는 영어 및 우크라이나어 사용 학자들에 의해 몇 권의 연구서가 출판되어 있다. 그 자신이 흐루셰프스키의 학문적 후배이면서 정치적 경쟁자이기도 했던 우크라이나 역사학자 드미트로 도로셴코가 망명시절에 쓰고 오흐로블린이 보완한 우크라이나 사학사는 우크라이나 역사학의 발전 전반에 대한 참고서로서 흐루셰프스키에 대해서도 유용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Dmytro Doroshenko(1957) *A Survey of Ukrainian Historiography: Olexander Ohloblyn, Ukrainian Historiography 1917-1956*, New York: The Ukraini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in the U.S. Inc. 흐루셰프스키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브이나르(Винар)는 주로 우크라이나어로 쓴 많은 연구를 발표했다. 영어권의 대표적인 흐루셰프스키 연구서인 프리막(Prymak)과 플로히(Ploky)의 책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 22) 정교회는 사제의 결혼을 허용하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여러 대에 걸쳐 성직자가 배출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 23) Ploky(2005), 26.
- 24) 어린 미하일로는 1870년에서 1878년까지는 부모를 따라 스타브로폴에서 지냈다.

움을 품게 되었다.²⁵⁾ 특히 그루지야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김나지움에 다니는 동안 “고독하고 몽상가적인 청소년이었던”²⁶⁾ 미하일로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가 소수민족인 카프카스 주민들의 삶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졌고, 이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인민들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전이되었다.

미하일로는 우크라이나어 책도 탐독했으며 청소년 시절 한때는 문학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수단 점령을 소재로 삼은 그의 단편소설 「베흐-알-주구르(Бех-аль-Джугур)」는 유명한 문인이던 이반 레비츠키-네추이의 주선으로 1885년 여름 오스트리아령 할리치나에서 발간되던 일간지 『대의(大義, Діло)』에 게재되기까지 하였다. 그는 훗날 자신이 한 때 문학청년이었으며 소설 「베흐-알-주구르」에서 “그 당시의 모든 해방지향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감정을 담아냈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이어서 “나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이야기에 향토적 색채를 부여하기 위해 이슬람 세계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약간의 지식을 활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애국자로서, 폭력과 식민지 민중에 대한 착취의 반대자로서 글을 썼다.”고 그 시절을 돌이켜 보았다.²⁷⁾ 당시 그의 꿈은 “우크라이나어로 글을 쓰는 작가, 출판인, 학자”였고 “우크라이나학이 장래의 전공이 되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다만 문학과 역사 중 어디에서 출발할지 결정하기 힘들어 한동안 망설였다.²⁸⁾ 그러나 코스토마로프, 쿨리쉬, 막시모비치, 프리핀 등의 저작을 탐독하면서 그는 자신의 적성이 역사학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루스의 기원, 루스 공들에 대한 학설들, 친슬라브주의자들과 서구주의자들의 논쟁, 코자크²⁹⁾ 집단의 기원, 우크라이나주의자들과 중앙집권주의자들의 논쟁, 우크라이나 문학과 민족 발전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 등이 10대 후

25) Михайло Грушевський(1981) *Автобіографія Михайла Грушевського з 1926 року* (1926), New York; Munich; Toronto: Українське Історичне Товариство, С. 8.

26) Михайло Грушевський(1981) “Як я був колись белетристом”, *Автобіографія Михайла Грушевського з 1926 року*(1926), С. 43.

27) М. Грушевський(1981) “Як я був колись белетристом”, С. 44.

28) Грушевський(1981), 9.

29) 유라시아 남부초원에서 활동하였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큰 중요성을 가졌던 독특한 전사집단은 러시아어로는 카자크(казак, 복수형은 카자키казаки), 우크라이나어로는 코자크(козак, 복수형은 코자키козаки)로 불린다. 이 글은 주로 우크라이나 역사를 다루므로 이 집단의 명칭을 ‘코자크’라 표기하기로 한다.

반의 김나지움 학생이던 그를 매료시켰다.³⁰⁾

1886년 트빌리시 김나지움을 졸업한 미하일로 흐루셰프스키는 키예프 대학에 진학하여 역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아버지 세르히는 학생결사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아들의 역사학 전공에 동의해 주었다. 세르히는 ‘근대적 의미의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속으로 감정을 담아두는 편이었다.³¹⁾ 이 점에서 세르히는 우크라이나 문화를 사랑하되 러시아 제국의 지배에 도전하지는 않는 우크라이나 문화주의자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였고 아들 미하일로로는 후일 이와 다른 노선을 걷게 된다.

대학 시절 미하일로 흐루셰프스키를 가장 강하게 매료시키고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키예프 대학 역사학 교수였으며 “당대 우크라이나 학문의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Найбільша окраса тодішньої української науки)”라고 흐루셰프스키 자신이 칭한 역사학자 볼로디미르 안토노비치였다.³²⁾ 폴란드 귀족 가문출신이면서도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억압하는 자기민족·자기계급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고 우크라이나 민중의 편에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연구하기를 택했던 안토노비치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에 입각한 엄밀한 역사 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 역사학의 창시자”라는 평가까지 받은 인물이다. 흐루셰프스키가 스승을 존경한 것 못지않게 안토노비치도 이 젊은이에게 큰 기대를 걸면서 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후원자가 되었다.³³⁾

안토노비치의 역사학은 철저한 사료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두는 것이었고 그는 흐루셰프스키에게 해당 주제와 관련된 문서고의 문서들을 샅샅이 섭렵하기를 요구했다.³⁴⁾ 흐루셰프스키는 재학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 2학년 때 학기 과제물로 제출한 논문 「16세기 후반 남부 러시아 지배자들의 성채(Южно-русские господарские замки в половине XVI века)」는 대학논문집에 실려 학계의 관심

30) Грушевський(1981), 9.

31) Грушевський(1981), “Як я був колись белетристом”, С. 43.

32) Грушевський(1981) 10.

33) Любомир Винар(1966) “Життя і наукова діяльність Михайла Грушевського: Джерела до біографії”, *Український історик*, nos. 1-2, С. 27.

34) 안토노비치의 손자 마르크 안토노비치는 자기 할아버지가 “흐루셰프스키는 역사가의 작업성과를 문서고에서 도서관으로 옮겨놓았다”고 평가했다고 회고했다. Винар(1966), 29, 각주 57.

을 끝였으며, 3학년 때 작성한 「야로슬라프 사망부터 14세기 말까지 키예프 지방의 역사(История Киевской Земли от смерти Ярослава до конца XIV века)」는 그에게 학부졸업 금메달과 석사과정 장학금을 안겨주었고 1891년 키예프 대학 논문집에 여러 번에 나누어 게재되었다.³⁵⁾ 석사과정에 진학한 흐루셰프스키는 안토노비치의 주문에 따라 2년 이상에 걸친 문서고 작업을 수행했는데, 석사논문 「바르 방백관구: 역사적 개관」은 그 산물이었다.³⁶⁾

흐루셰프스키는 스승에게서 엄격한 역사학 연구방법론을 배우는 한편, 민중을 중심에 놓는 그의 인민주의적(народник) 사관에도 크게 공감하여 이를 받아들였다.³⁷⁾ 청년 시절의 그는 사회현상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키예프 지방의 역사」 외에 1891년에 집필한 볼르인 역사에 대한 논문과 1892년에 발표한 논문들에서도 이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13세기 우크라이나 루스의 사회운동」(Громадський рух на Україні в XIII віці)이라는 논문에서 흐루셰프스키는 바투가 이끄는 몽골-타타르 군대의 침공 이후 자발적으로 그들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 루스 사람들인 이른바 ‘타타르파 사람들(татарські люди)’ 혹은 ‘친타타르파 루스 사람들(татарофільські русі)’에 대해 동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은 전통적 정교, 민족문화를 지키고 공들의 지배 시기보다 더 많은 정치, 경제, 문화적 자유를 얻고자 타타르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이다.³⁸⁾ 그는 루스 공이 지배하는 국가의 부정적 특징을 열거하면서 “우리는 국가가 사회의 정신적·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국가를 문화적이고 진보적인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드라호마노프는 흐루셰프스키가 속한 키예프 학파가 국가와 사회를 너무 자의적으로 구분한다고 비판했다.³⁹⁾

흐루셰프스키는 자신의 인민주의적 경향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나는 성 키릴-메포디 형제단에 기원을 둔 우크라이나의 급진적 인민주의의

35) Грушевський(1981), 10.

36) М. Грушевський(1894) *Барское старство,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Киев: Тип. имп. ун-та св. Владимира.

37) Прумак(1987), 18.

38) Грушевський, “Громадський рух на Україні-Русі в XIII віці,” <http://www.m-hrushevsky.name/uk/History/1892/GromadRuxNaVkrRusi13st/V.html>(검색일: 2014.11.05).

39) Прумак(1987), 20에서 재인용.

엄격한 전통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인민과 정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정부가 비판받아야 한다고 확고히 믿었다. 근로인민의 이익이 최고의 선이며 이 이익이 무시된다면 인민은 거리낌 없이 사회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⁴⁰⁾ 젊은 시절의 흐루셰프스키는 민족보다 민중을 훨씬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도로셴코는 “흐루셰프스키의 저작 『우크라이나-루스의 역사』와 우크라이나사에 대한 그의 개설서에는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하였다.⁴¹⁾ 그러나 민족보다 민중을 중시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역사서술에서 민족이 더 전면에 나서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안토노비치는 문화 계몽활동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령이던 할리치나에서 우크라이나 문화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진력하였고 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오스트리아가 상급지배권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할리치나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세력은 폴란드인들이었으므로 이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였다. 안토노비치는 할리치나 우크라이나의 르비브 대학에 우크라이나사 전담교수직을 설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 및 할리치나의 폴란드 행정당국과 끈기 있게 교섭한 끝에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그는 제자인 흐루셰프스키를 이 자리에 천거하였다. 흐루셰프스키도 문화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할리치나를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의 선봉에 있는 곳이요 우크라이나 소생의 중심지”라고 여겼기 때문에⁴²⁾ 이를 수락하였다.

할리치나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정부의 문교대신 가우치 남작(Freiherr Paul Gautsch von Frankenthurn)은 “우크라이나 역사는 구체성 있는 학문이 아니다(Ruthenische Geshichte ist keine konkrete Wissenschaft)”라고 단언하면서 르비브대학 우크라이나사 강좌 개설에 반대하였다. 강의를 개설하더라도 우크라이나사라는 명칭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결국 강좌 개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강좌 명칭은 “동유럽사를 각별

40) Doroshenko(1957), 270에서 재인용.

41) Doroshenko(1957), 271.

42) Michael Hrushevsky(1915) “The Ukrainian Revival”, *Ukraine's Claim to Freedom: An Appeal for Justice on Behalf of Thirty-Five Millions*, New York: The Ukrainian National Association and The Ruthenian National Union, p. 28. 흐루셰프스키의 이 글은 원래 1904년 페테르부르크에서 출판된 『우크라이나 인민의 역사 개관』의 일부이다.

히 배려하는 세계사 제 2강좌”로 정해졌다.⁴³⁾ 그러나 대학에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강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큰 혁신이었다. 1894년 5월에 석사(마기스테르) 학위를 받고 여름에 논문과 두 권의 사료집을 출판한 흐루셰프스키는 1894년 9월 스물 여덟 살의 나이로 르비브 대학 교수로 취임했다. 취임 연설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확신을 천명하면서 “루스의 전체 역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동일한 민족으로 동일한 중심이념이 동일한 정치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전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 연설에서 민중중심적 사관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인민은 역사의 유일한 영웅”이었고 역사의 목적은 “인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적 상황과 그들의 모험, 열망, 이념을 이해하는 것”이었다.⁴⁴⁾

흐루셰프스키는 강의 외에 종합문헌잡지를 간행하고 일간지 『대의』의 역사-철학면 담당자로서 우크라이나 독자들을 위한 역사 관련 읽을거리를 소개하는 일도 수행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열성을 기울인 일은 ‘타라스 셰브첸코 학회(Наукове Товариство імені Тараса Шевченка)’ 활동이었다. 시인 셰브첸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학회는 우크라이나 문화의 증진과 보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흐루셰프스키가 참여하면서 이 단체의 학술활동, 특히 역사학 분과의 활동은 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는 이 학회 기관지인 『회보(Записки)』의 편집장이 되어 이 잡지를 “연 1회 발간에서 계간지로, 그 후에는 격월간지로 전환시켰고” 스스로도 많은 논문, 연구노트 및 서평을 게재하였다.⁴⁵⁾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루스 역사 사료집(Джерела до історії України-Руси)』 총서 발간도 주도하였고 1897년에는 셰브첸코 학회의 회장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역사연구와 관련된 흐루셰프스키의 노력은 열권으로 된 『우크라이나-루스 역사(Історія України-Руси)』⁴⁶⁾로 집대성되었다. 이 저작은 동슬

43) Грушевський(1981), 12-13.

44) Грушевський(1894) “Вступний виклад з давньої історії Русі, виголошений у Львівським університеті 30 вересня 1894 р.”, *Записки Наукового товариства імені Шевченка*, Т. IV, С. 149.

45) Грушевський(1981), 13.

46) 플로히는 『우크라이나-루스 역사』가 열한 권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열한 권째 책 원고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온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Plokyh 2005: 423-430). 소련 해체 후 키예프에서 영인출판된 『우크

라브인들의 초기 역사부터 흐멜니츠키 사망 직후인 1658년까지 우크라이나인들의 역사를 일관된 연속성이라는 시각 아래서 서술한 것이다. 그는 1898년 열 권 가운데 첫 권을 출판하였다.⁴⁷⁾ 이 책은 우크라이나 독서계의 환영을 받았고 독일어로 번역되어 폴란드 역사학계를 비롯한 유럽학계에서도 호평을 받았지만⁴⁸⁾ 러시아 제국정부로부터는 판매금지를 당하였다.

흐루셰프스키는 차츰 정치활동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시인 이반 프란코와 의기투합한 흐루셰프스키는 1899년 민족대회에서 프란코와 함께 새로 창당될 정당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당은 ‘민족민주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민족민주당은 민족문제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미래에 독립 우크라이나를 건설한다는 강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 목표는 오스트리아 제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통일과 자치를 획득하고 러시아제국을 연방제 입헌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러시아령 우크라이나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직자들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가입과 급진파의 당권 장악 움직임이 뒤섞여 당의 성격이 모호해지자 흐루셰프스키와 이반 프란코는 곧 이당을 떠나게 되었다.⁴⁹⁾

그런 한편 할리치나의 폴란드인 당국자들은 공식적인 장에서 우크라이나어 사용을 금하고 폴란드어 사용을 강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흐루셰프스키는 할리치나의 폴란드화를 막되 친러시아 노선으로 이를 관철하려는 우크라이나인 보수파의 세력도 제압해서⁵⁰⁾ 할리치나를 우크라이나 문화와 민족의식 확산의 디딤돌로 만들고 이 원칙을 러시아령 우크라이나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 통일 당시 피에몬테가 통일세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듯이,

라이나-루스 역사』(Наукова Думка, 1991-2000)의 편집자들도 이 책이 원래 11권 12책으로 구상되었던 것으로 여기고 속표지에 그렇게 기입하고 있다.

47) 이 책의 제2권은 1899년에, 제3권은 1900년에, 제 4권은 1902년에, 제5권은 1905년에, 제6권은 1907년에, 제7권은 1909년에, 제 8권은 1913년(제1부), 1916년(제2부), 1918년(제3부)에 출판되었다. 제 9권과 10권은 러시아 혁명 후에 집필되고 출판되었다.

48) Doroshenko(1957), 271.

49) Doroshenko(1957), 56-58.

50) 흐루셰프스키는 “이른바 ‘친러시아파’야말로 우크라이나인들의 바로 한복판에 있는 적”이라고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썼다(Hrushevsky 1915: 32).

호루셰프스키는 할리치나를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피에몬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할리치나의 폴란드화에 맞서는 호루셰프스키의 태도는 르비브 대학 당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고 그를 교수직에서 내쫓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호루셰프스키와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은 별도의 우크라이나 대학을 설립하려는 행동을 전개하였고⁵¹⁾ 학생들은 집단적으로 르비브 대학을 자퇴하였다.

1903년 호루셰프스키는 러시아어로 된 『우크라이나 인민의 역사 개관(Очерк истори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을 완성하였는데, 기존의 러시아 역사책에서 볼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 역사 구분방식과 아주 다른 이 역사서에 대해 러시아 출판사들은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그는 이 책을 1904년에 자비로 출판할 수 밖에 없었다.⁵²⁾ 이 책에서 그는 “우크라이나의 식민활동”에 대해 논하면서 동경 38도에서 59도⁵³⁾, 북위 45도에서 53도에 걸쳐 75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식민활동에 포괄된 땅이며, 슬라브인들의 확산이주 시절에 이미 우크라이나 종족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정주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지역에는 베사라비아(루마니아 거주지역), 그로드노, 민스크(벨라루스의 주요도시들), 보로네슈(러시아 흑토대의 도시)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다.⁵⁴⁾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선주권을 주장하는 그의 서술이 러시아제국의 통합성을 강조하는 주류 논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음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1903년 10월 「‘러시아 역사(루스 역사)’의 전통적 도식과 동슬라브 역사의 합리적 조직의 문제(Звичайна схема ‘русской історії’ і справа

51) Hrushevsky(1915), 36.

52) Prymak(1987), 62.

53) 우크라이나 식민 활동 지역의 경도에 대한 호루셰프스키의 표기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역사 개관』이 판을 달리할 때마다 달라진다. 제 1판에서는 동경 38도에서 59도라고 되어있지만 제2판(1906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출판)에서는 동경 38도에서 60도, 제 3판(1911년 키예프에서 출판)에서는 동경 38도에서 62도라고 표기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인들 거주 지역은 넓게 잡아도 대개 동경 24도에서 40도 정도에 걸쳐 있다. 경도 표시에 대한 호루셰프스키의 기준이 달랐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할 길이 없다. Михайл Грушевський(1906) *Очерк истори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С.-Петербург: Типография товарище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ая польза”, С. 1; Михайл Грушевський(1911) *Очерк истори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Издание 3-е, дополненное, Киев: Типографія 1-й Киевской Артели печатного дела, С. 1.

54) Н.М. Павлов(1905)에서 재인용.

раціонального укладу історії східного Слов'янства)』라는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여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는 시각에 전환을 가져왔다. 그는 전통적 러시아 역사(루스 역사) 이해는 모스크바 대공의 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러시아 국가”의 역사를 바탕으로 둔 것으로, 이 때문에 러시아 역사(루스 역사)는 대러시아 인민의 역사 및 그들의 문화생활의 역사와 거의 같은 것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오류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루스 역사의 전통적인 도식은 가장 단순화된 형태의 “루스 법제사”로서 키예프국의 법제-모스크바국의 법제-러시아제국의 법제라는 삼분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통적 역사도식에서 가장 불합리한 면은 키예프국과 13-14세기의 블라디미르-모스크바국을 한데 연결시켜 이 두 정치단위를 연속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흐루셰프스키가 보기에 키예프 국가와 이 국가의 법제 및 문화는 우크라이나-루스 민족(українсько-руська народність)의 창조물이며 블라디미르 대공국-모스크바 대공국과 그 법제 및 문화는 대러시아 민족이라는 별개의 민족의 창조물이다. 그는 키예프 루스 공의 가계와 모스크바국의 정치제도사를 뒤섞어서는 안 되며, 러시아 국가사와 러시아인-우크라이나인-벨라루스인의 역사를 뒤섞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더 나아가 키예프 국가의 계승자는 모스크바국-러시아가 아니라 할리치나와 볼르인, 그리고 그 후의 리투아니아라고 주장한다.⁵⁵⁾

모스크바국과 러시아국가의 기원을 키예프 루스에 두는 견해는 타티시체프 이래 러시아 역사학자들에 의해 변함없이 옹호되어 왔다. 이것이 사실 오늘 날까지도 러시아사를 보는 일반적 견해의 바탕을 이룬다. 또한 이는 17세기 후반 이래 키예프와 좌안 우크라이나의 성직자 역사가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통합을 염원하며 서술한 역사서에서 그 바탕을 제공해 준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사와 러시아사의 전개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흐루셰프스키의 사론은 대담한 도전이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어로 된 문헌들을 발표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어의 기원과 분포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여 우크라이나어가 러시아어의 방언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독자적 언어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1905년 혁명 이후 억압이 완화된 분위기 속에서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

55) Грушевський(1903) “Звичайна схема русскої історії й справа раціонального укладу історії східного слов'янства”, <http://litopys.org.ua/hrs/hrs02.htm>(검색일 2013.09.25). 이 논문은 1904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슬라브학 논문집(Статьи по славяноведению)』 제 1집에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나의 자치를 얻기 위해 정치적 활동도 계속했다. 두마 구성이 허용되자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 세력의 원내집단인 우크라이나 클럽⁵⁶⁾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고⁵⁷⁾ 우크라이나인들의 이념적 지도자가 되었다.⁵⁸⁾ 그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자기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치적 동맹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한 반면 이에 역행하는 정파간 연합에는 반대하였다.⁵⁹⁾ 흐루셰프스키는 러시아 제국을 분권화하고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민족적-영토적 자치를 허용하는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파벨 밀류코프와 같은 러시아의 입헌민주당 정치인들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자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⁶⁰⁾ 이 같은 학문적, 정치적 노력 속에서 흐루셰프스키는 범러시아주의나 범슬라브주의 대신 범우크라이나주의로 나아갔다. 드미트로 도로셴코는 흐루셰프스키가 젊은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에게는 “범우크라이나적 통일”의 상징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⁶¹⁾

흐루셰프스키는 1905년 혁명 기간 중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키예프, 할리치나를 오가며 조직활동에 열중했으며 연구 활동도 계속했다. 그는 일반 독서대중을 위한 우크라이나 역사 개설서를 출판하였다. 1907년에 『우크라이나의 옛 시절(Про старі Часи на Україні)』이라는 제목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 출판되기 시작한 개설서는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911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키예프-르비브에서 출판되었고 이 책은 그 후 1912년, 1913년, 1915년, 1917년, 1919년에 거듭 출판되었다. 1913년에는 러시아어본도 출판되었다. 『우크라이나-루스의 역사』가 17세기 중반까지만 다루고 있음에 반해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20세기 초까지 서술대상으로 삼았다.

1906년부터 흐루셰프스키는 그가 대(大)우크라이나(Велика Україна)라고 부

56) 이는 러시아 제국 국가두마의 의원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민주급진당원 쉬라흐와 입헌민주당 소속 취제프스키가 주도하고 근로인민당 소속 의원들 및 무당파 농민출신 의원들이 합류하여 만든 단체이다(Prymak 1987: 75-76).

57) Грушевський(1981), 25.

58) 이는 드미트로 도로셴코의 회고이다. Грушевський(1981: 25)의 편집자 류보미르 브이나르의 주석 43)에서 재인용.

59) Ploky(2005), 62. 그는 여러 정당, 정파 중 우크라이나 민족민주당에 가장 가까웠지만 당적을 가지지는 않았다(Ploky 2005: 62).

60) Ploky(2005), 66.

61) Prymak(1987), 76에서 재인용.

른 러시아령 우크라이나, 그 중에서도 키예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⁶²⁾ 키예프에 저택을 구입하여 확실한 활동근거를 마련하였다.⁶³⁾ 1906년에는 『문학-학문 통신』지의 편집국이 키예프로 옮겨왔고 1907년에는 그의 주도로 키예프에 우크라이나 학술협회(Українське Наукове Товариство)가 창설되어 학술연구와 대중강연, 학술탐사를 주관하게 되었다.⁶⁴⁾

그의 활동에 대한 견제도 늘어났다. 1905년 혁명이 퇴조를 겪고 스톨리핀 수상이 보수적 정책으로 국정을 장악하게 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제국 당국의 정책도 강경해졌다. 흐루셰프스키는 폴란드, 러시아 양쪽에 대해 비타협적인 노선을 더욱 강화시켜갔다. 1911년에 발간한 『우리의 정책(Наша політика)』이라는 평론집에서는 할리치나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민족민주당의 지도부가 민중의 요구에 관심을 두지 않고 폴란드인들과의 타협으로 기울어진다는 이유로 이 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할리치나의 우크라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이로 인해 야기된 갈등 끝에 세브첸코 학회 회장 자리를 물러났다.⁶⁵⁾

1차대전이 발발했을 때 흐루셰프스키는 카르파티아 산맥 부근의 여름 별장에 머무르고 있었다. 교전당사자이던 오스트리아 정부와도 러시아정부와도 불화했던 그는 빈, 이탈리아, 루마니아를 거치는 긴 여행 끝에 겨우 키예프로 돌아왔다. 그러나 키예프 도착 직후 러시아 당국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유형의 위협 아래 놓였다가 알렉세이 샬호마토프를 비롯한 러시아 학자들의 구명요청에 따라 모스크바로 옮겨올 수 있었다.⁶⁶⁾ 러시아 관헌당국은 그를 ‘마제파주의자’ 곧 분리주의자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여 ‘경찰의 엄격한 감시’ 아래 두었다.⁶⁷⁾ 그를 비난하는 인물들은 그가 오스트리아의 후원을 받아 할리치나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는 친러시아적이라는 의심을 샀던 데 반해 러시아 정부로부터는 친오스트리아적이라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⁶⁸⁾ 그는 이처럼 거북스러운 처

62) Грушевський(1981), 24.

63) “Михаил Грушевский”, <http://www.rulex.ru/01040380.htm>(검색일: 2013.09.12).

64) Грушевський(1981), 25.

65) Грушевський(1981), 26.

66) Грушевський(1981), 27.

67) Грушевський(1981), 27.

68) Ploky(2005), 70.

지에서도 『우크라이나-루스의 역사』 집필을 계속하였다. 이 시기에 이 책 8권의 제 2부를 출판하고 제 3부를 집필 완료했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세계사 책도 집필한 것⁶⁹⁾은 당시 여전히 왕성했던 그의 필력을 입증한다.

1917년 러시아의 2월 혁명은 흐루셰프스키의 운명에 전기를 가져왔다. 키예프에서는 3월 초 우크라이나 중앙라다가 결성되었다. 혁명 직후 연금에서 풀려난 흐루셰프스키는 자신이 부재중에 중앙라다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니 키예프로 귀환하라는 라다의 전보를 받고 3월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⁷⁰⁾ 일종의 로비기구였던 중앙라다는 그의 지도 아래서 차츰 우크라이나 인민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전환되어 갔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체를 이끌게 된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치적 자기결정 요구가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⁷¹⁾ 이 같은 인식과 혁명 과정 속 러시아 정치권력의 불안정성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중앙라다의 정치적 자기결정권 요구도 격변을 겪게 되었다. 중앙라다는 11월 7일자로 작성된 제 3차 포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이리하여 우크라이나 땅에는 흐루셰프스키가 주도하는 키예프 중심의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과 전(全)우크라이나 노동자 병사 농민 소비에트가 주도하는 하르키프 중심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정부가 양립하게 되었다.⁷²⁾ 중앙라다는 1918년 1월 9일(신력 22일)자로 작성된 제 4차 포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였다.⁷³⁾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가의 수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8년 초 볼셰비키 군대가 키예프로 들어와 이 도시를 장악하였다. 중앙라다 정부는 지토미르로 피신하였다. 그 사이에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와 키예프를 점령하였다. 독일군의 개입은 중앙라다 정부가 스스로 요청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당시 흐루셰프스키의 행보는 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

69) Грушевський(1981), 28.

70) Грушевський(1981), 28.

71) 그가 이를 깨닫게 된 계기는 3월 19일부터 키예프에서 10만 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거행한 대규모 시위였다. Михаил Грушевский(1996)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Киев: МПП «Левада», С. 562.

72) Paul Robert Macosi(1998), 481.

73) 이 같은 독립선언에 우크라이나 주민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 유대인, 러시아화한 키예프 도시주민들은 이에 격렬히 반발하였다. (Prymak 1987: 159).

는 것이었다. 독일군은 4월, 파블로 스코로파드스키를 헤트만으로 내세운 꼭두각시 정부를 수립하였고 흐루셰프스키는 정치의 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스코로파드스키 체제가 무너진 후 친볼셰비키 세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승기를 굳힘에 따라 흐루셰프스키의 입지는 너무나 좁아졌고, 그는 1919년 4월 우크라이나를 떠나 망명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망명 생활에 적응할 수 없어, 1924년 3월 다시 키예프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는 페틀류라 세력(총재정부)이 패배하고 소련의 일원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어 있었다. 소련 정부는 흐루셰프스키를 방향전환파(스메노베호프츠이), 즉 볼셰비키 권력에 반대하여 러시아를 떠났으나 그 후 이 권력을 인정하고 러시아로 돌아온 일파의 인사처럼 받아들였다. 반면 키예프의 일부 대학생들은 그가 소련 내부에서 반볼셰비키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했다고 한다. 흐루셰프스키의 귀국문제를 연구한 페디르 셰브첸코나 플로히는 전반적으로 보아 키예프 대학생들의 견해가 아니라 소련 정부의 해석이 더 타당했다고 본다.⁷⁴⁾ 즉 흐루셰프스키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련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부와 협력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정권과 일정한 타협을 맺은 후 귀국했다는 것이다. 1918년 독일군의 지원으로 수립되었고 흐루셰프스키 자신을 정치활동의 장에서 밀어내버렸던 스코로파드스키의 반동적 정권에 비한다면 소비에트 정권이 사회정책의 면에서 그의 이념에 훨씬 더 가까웠던 것이 분명했다.

흐루셰프스키는 사회정책면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1917년 혁명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 국가의 독자성을 확고하게 주장하게 된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한때 볼셰비키가 민족문제에서 옛 제정 러시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중앙집권적인 세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소비에트 정부에 반대했다. 그런데 소비에트 정부는 민족문제에서 연방제 안을 채택하여 우크라이나를 연방공화국으로 편성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언어적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는 혁명과정에서 러시아 연방공화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치라는 요구를 내걸었던 흐루셰프스키 자신의 입장보다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었다. 흐루셰프스키의 우크라이나 귀환 동기를 상세하게 살폈던 플로히의 연구에 따르면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의 형성과 소련의 형성이 우크라이나에 대

74) Ploky(2005), 215-216.

한 폴란드의 영토적 문화적 요구를 막아내고 우크라이나의 통일을 지켜내는 데 유용한 틀을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했다.⁷⁵⁾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 학술원의 초청을 받고 키예프로 귀환하였으며 귀국 후 학술원과 관련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스탈린 정권은 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이제 소련 체제는 그가 귀국하던 당시 알고 있었던 그 체제가 더 이상 아니었다. 1931년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추방되어 모스크바로 와서 살게 되었고 1934년 겨울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⁷⁶⁾ 예순 여덟 살이었으므로 그리 단명한 편은 아니었으나, 비밀경찰의 감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사망할 만큼 허약한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4. 『우크라이나의 역사』⁷⁷⁾

흐루셰프스키의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그가 우크라이나 역사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쓰고 풍부한 화보자료를 덧붙여 출판한 개설서이다. 이 책은 1941년 크게 축약 편집된 형태로 영어로도 번역되었는데⁷⁸⁾, 미국 예일 대학에서 러시아 역사를 강의하였던 유라시아파 역사가 게오르기 베르나드스키(조지 버나드스키)는 이 영역본에 서문을 쓰면서 흐루셰프스키를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널리 권위를 인정받아온 지도적인 우크라이나 역사가”라고 평가하였다.⁷⁹⁾

75) Plochy(2005), 235.

76) Юрій Шаповал(2000) “Загадка смерти Михайла Грушевського”, *На службі Кліо: Збірник наукових праць на пошану Любомира Романа Винара, з нагоди 50-ліття його наукової діяльності*, Kyiv; New York; Toronto; Paris; L'viv, C. 266-287.

77)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삽화로 보는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78) M. Hrushevsky(1941) *A History of Ukraine*, edited by O. J. Fredericks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Reprint Archon Books(1970).

79) M. Hrushevsky(1941), v.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 2001년 러시아어본에 서문을 쓴 알렉세이 밀레르가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역사라기보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민족(나로드)의 역사를 썼다.”고 평한 것은 맞는 말이다.⁸⁰⁾ 흐루셰프스키가 이 책을 쓸 때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없었다. 흐루셰프스키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라고 불리는 땅에서 살았으며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선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삶과 활동, 문화를 그들을 지배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고 있다. 그런데 그의 서술은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이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고 이 책의 집필 당시인 러시아 제국 말기에는 확고한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우크라이나 인민은 혈연적 개념의 우크라이나 민족과 동일한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사는 사람이 모두 우크라이나인이라고 흐루셰프스키 자신은 책의 서두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 땅에 살면서도 우크라이나 인민에 속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 예컨대 러시아인, 유대인, 폴란드인 등의 삶은 다루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좁은 의미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없었고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이루는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리저리 찢겨져 여러 외국의 지배를 받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땅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 땅에 사는 우크라이나인을 말할 수 있을까?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적 요소’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 말을 아주 자주 쓴다. 그 요소는 키예프 루스, 정교, 코자크, 우크라이나어이다. 키예프 루스의 땅에서 정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우크라이나인을 형성했고 코자크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 국가의 초보적 형태를 제공하였다. 우크라이나 민중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고 발전시켰으며 우크라이나 문인들은 이 언어를 근대적인 문학어로 발전시켰다. 우크라이나어를 독자적 언어로 수호하려는 사투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의식이 강화되었으며 우크라이나어로 된 문헌과 문학작품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이 같은 요소론을 가지고 그가 이 책에서 어떠한 역사관을 펴고 있는지 살펴보자.

80) А. И. Миллер(2001) “Предисловие: 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Грушевский и его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М.С. Хрушевский,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Москва: Сварог и К, С. viii.

키예프 루스의 전유

흐루셰프스키는 드니스테르 강 유역, 드니프로 강 유역 및 아조프 해 연안 지역에까지 걸쳐 살던 우크라이나 선주민들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방에 확산이주하여 우크라이나인들의 선조가 되었으며 이들이 키예프 루스를 건설했다고 본다. 그는 루스가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른바 ‘바라기 초빙’설)은 거부한다. 그 대신 키예프 부근에 거주한 폴라네인들이 루스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⁸¹⁾ 그리고 흐루셰프스키는 키예프 루스는 오로지 우크라이나 역사에만 속할 뿐 모스크바국과 후일의 러시아는 키예프 루스의 계승과 상관없이 없다고 여긴다. 키예프가 쇠락한 후에는 할리치나와 볼르인이 키예프 루스 권력의 계승자 역할을 하였고 리투아니아 세력이 커진 후에는 리투아니아가 그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몽골-타타르 세력의 침입 이후 북쪽으로 이주해 가서 러시아의 주민을 이루게 되었다는 주장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몽골-타타르 침입 이후에도 계속 우크라이나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처음부터 거주영역이 달랐다고 본 것이다.

흐루셰프스키가 같은 동슬라브인에 속하는 러시아인들의 키예프 루스 계승권은 거부하는 대신 슬라브인이 아닌 리투아니아가 세운 리투아니아 대공국을 오히려 키예프 루스의 계승국가로 보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북쪽으로 이주해 가서 모스크바국의 주민이 되었다는 설을 거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 같은 키예프 루스의 자손들이 갈라져 살다가 한데 합쳐진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동북지역은 키예프 루스의 계승자가 아닌 외부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수즈달 공 브세볼로드 같은 외부의 음모자가 우크라이나의 일에 개입하는 것에 한계를 긋고”⁸²⁾ 같은 문장은 이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81) Грушевский(1996), 47-50. 이 키예프본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1913년에 출판된 러시아어본이다. 1913년본은 1911년에 출판된 우크라이나어본을 저자 자신이 러시아어로 다시 출판한 것이다. (1913년판 서문 참조.) 두 판본은 철자법이나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를 빼고는 내용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 1921년 비인에 체류하던 기간 중 저자는 1차 대전부터 1918년 스크로파드스키의 헤트만 정부 수립 때까지의 역사를 보완하여 증보판을 냈다. 이 증보판은 일차대전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1913년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살리되 자잘한 수정을 가했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 특히 러시아혁명에서 1918년 스크로파드스키 체제수립에 이르는 상황을 그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판본의 가치는 아주 크다.

정교의 중요성

우크라이나가 리투아니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그 후에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왕국의 지배 아래 놓여 사실상 폴란드인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독자성은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종교인 정교가 가톨릭사회인 폴란드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었기에 두 민족이 구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는 키예프 루스 시기부터 루스 사회에 비잔티움 문화, 비잔티움 예술, 교육제도가 미친 영향을 중시하였고 국가 종교였던 비잔티움적 정교의 의미를 중시하였다. 그런데 폴란드 지배 아래서 비잔티움 문화는 쇠퇴하였다. 이 점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비잔티움 문화는 폴란드-리투아니아 문화가 국가생활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점점 유용성이 떨어졌으며 한 마디로 말해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 말고는 아무 데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문화의 비잔티움적 원천도 이미 오래 전에 메말라서 시대와 생활의 필요에 발맞추어 가지 못한 채 단지 옛 것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폴란드-라틴 문화와 경쟁할 가능성을 상실하였고, 특히 폴란드-라틴 문화가 집중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격차가 더 커졌다.⁸³⁾

세속생활에서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력은 이처럼 감소했지만 비잔티움에서 전파된 정교의 의미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에서 결코 축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교는 ‘루스를 루스에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15-16세기에)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민족성의 유일한 대표자였고, 민족적 것발이었으며 동시에 민족 문화의 가장 견고한 지주였다.⁸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당시에 우크라이나 민족의 모든 계층과 부문을 단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반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옛 정교회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생활의 개념 자체 또는 (고대 키예프 국가의 전통에 따라) 당대의 명칭으로 하자면 루스(русский) 생활의 개념 자체와 분리할 수 없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또 그렇게 느꼈다.⁸⁵⁾

82) Грушевский(1996), 114.

83) Грушевский(1996), 222.

84) Грушевский(1996), 222.

85) Грушевский(1996), 223.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정교회의 독자성은 민족자결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교회는 모든 민족적 생활의 기초이자 상징이어서 정교회가 붕괴하면 민족의 삶 전체가 최종적으로 무너진다고 보였기 때문이다.⁸⁶⁾

흐루셰프스키는 15세기에 이미 정교와 관련하여 “민족생활”, “민족의 소생”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다.⁸⁷⁾ 그리고 1540년대 르비브 형제단의 정교쇄신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민족(народность)’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⁸⁸⁾ 즉 그의 관점으로는 옛 키예프 루스 영역에 거주하던 사람들 가운데 정교신앙을 고수한 사람이 우크라이나인이다. 폴란드 지배세력이 종교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차별하였기 때문에 흐루셰프스키는 이 같은 이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루스의 종교를 수용한 리투아니아 지배자들을 호의적으로 평가한 대신, 우크라이나인들과는 종교-문화적으로 달랐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종교를 용납하지 않았던 폴란드 지배층에 대해서는 심한 반감을 가졌다. 우크라이나인을 정교신자와 동일시함으로써 흐루셰프스키의 지평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땅에 살던 다른 민족 출신 주민들의 삶, 다른 종교 신봉자들의 삶에 대해 흐루셰프스키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지적은 타당하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인들 가운데 정교의식을 고수하면서도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이른바 통합교회파는 정교회에서 벗어났음에도 우크라이나인으로 여긴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부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상 통합교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의 민족신앙이 되었다고 본다. 통합교회 신앙인 폴란드 주류 종교인 가톨릭과 구분되는 종교라는 점에서 흐루셰프스키는 통합교회의 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 지배 아래서는 언어가 중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후에는 더 이상 종교가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정교를 신봉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흐루셰프스키는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두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

86) Грушевский(1996), 239.

87) Грушевский(1996), 165, 166, 167.

88) Грушевский(1996), 168.

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종교를 신봉하므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저작인 17세기 동굴 수도원 성직자의 저작 『시놉시스』에 대해 냉소적인 평가를 보낸다. 흐루셰프스키에게는 새로운 구분선이 필요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다음 시기에 대해서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가 다르다는 것을 중시한다. 특히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유했던 문어인 교회슬라브어 대신 근대 우크라이나 민중의 구어를 중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언어적 공통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러시아 지배 하에서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언어민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데, 흐루셰프스키에게서도 이 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19세기 전반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싹이 나타난 후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정부가 발루예프의 명령과 엠스의 칙령 등으로 우크라이나어로 된 출판물의 발간을 금지한 것을 흐루셰프스키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긴다. 그는 이 책에서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어 정책을 면밀히 추적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어로 문학활동을 하였던 우크라이나 문인들을 우크라이나 소생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코자크 중심 사관

흐루셰프스키는 강렬한 문화적 민족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인민주의자였다. 그는 민중의 저항권을 인정하였고 정부가 민중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에는 정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중의 삶에 대한 애정은 그의 역사서술에서 바탕을 이룬다. 그러나 그러한 흐루셰프스키도 키예프 시대와 리투아니아 지배 시기 역사는 지배자 중심으로 파악한다. 즉 그는 정교를 믿거나 존중하는 지배자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공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정교회를 신봉하는 통치귀족들, 곧 우크라이나 공들과 권문세가들이 아직도 확고하게 버티고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정교회 생활 및 이와 관련된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도 정교회에 적대적인 폴란드 정부로 인해 우크라이나 교회 생활이 맞은 와해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었다.⁸⁹⁾

흐루셰프스키는 15-6세기부터는 소시민층의 동향도 주목하게 되고 근현대

89) Грушевский(1996), 239.

사로 올수록 우크라이나 민중의 삶을 우크라이나 민족생활의 중심에 두면서 이들을 활동을 고찰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그런데 공들을 비롯한 통치귀족층이 사라진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력은 다름 아닌 코자크 집단이다.

흐루셰프스키의 『우크라이나-루스』 7권은 ‘코자크의 시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후 10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코자크 지도자들과 코자크 집단의 활동을 서술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 흐루셰프스키는 코자크를 우크라이나 민족성의 근간으로까지 여긴다.

코자크는 생계를 위해 초원을 누비던 초민족적, 초국가적 전사(戰士) 집단이었고 애초에 그들의 존재형태는 비적과 구분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흐루셰프스키는 이들이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유일하게 군사력을 갖춘 세력으로서 폴란드 정부의 규제에 맞서서 집단적으로 저항하였고 동시에 이슬람 세력과의 대결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의 수호자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민족문화의 수호자의 지위로까지 격상된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그는 코자크 집단이 내부적으로 자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도자를 선출하고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대단히 중시한다. 코스토마로프와 같은 선배 역사가가 코자크들에게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원칙의 선구자들을 보았던 것⁹⁰⁾과 마찬가지로였다. 그 뿐 아니라 흐멜니츠키 이후에는 바로 코자크 집단이 우크라이나 국가성의 담지자가 된다. 흐루셰프스키는 코자크 역사 초기와 관련해서는 자포로자 코자크에 주목하지만 흐멜니츠키의 봉기 이후 코자크 헤트만이 우크라이나인 전체의 지도자가 되고부터는 코자크 지도자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헤트만은 나라 전체의 군주이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고 행정관이 되었고,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다.⁹¹⁾

그러나 코자크에 대한 과대평가는 위험한 면도 가지고 있다. 코자크는 우크라이나 유일의 군사적 집단이었고 통치력, 행정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90) 코자크 집단에 대한 코스토마로프의 견해에 대해서는 한정숙(2004: 421-422)을 참조하시오.

91) Грушевский(1996), 327.

원래는 폭력성이 강한 약탈자들이었고 생존을 위해 충성의 대상을 수시로 바꾸기도 한 집단이었다. 저자 자신도 이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코자크들은 전쟁을 자신들의 직업으로 여겼고 보수를 지급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다(이러한 것은 당시 유럽의 군대 지도자들의 일반적 관행이었다).⁹²⁾

이와 같은 약간의 유보적 표현을 제외하면 코자크를 중심에 놓는 역사서술은 19세기까지 이어진다. 코자크가 우크라이나에서 통치와 행정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목적론적 사고

이처럼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키예프 루스의 후계자들로서 정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고 코자크의 지도 아래서 민족으로 형성되어 나온 것으로 여긴다. 그는 이 책 50장에서는 코자크의 기원, 용어에 대해 설명하면서 15세기라는 시점에서 이미 ‘우리 우크라이나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형성을 그는 이처럼 일찍 설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 민족이라는 말을 아주 이른 시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시대착오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구사하고 있으며, 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목적론적 사고의 경향을 드러낸다. 즉 앞에서 거론한 여러 요소들이 모두 우크라이나인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작용했다고 본다. 그는 우크라이나인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라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요소”라는 말을 쓸 뿐 아니라 이 요소를 가진 사람들 자신을 “우크라이나 요소(украинский элемент)”라고 부른다. 그는 15세기 중엽에 리투아니아 대공들이 리투아니아 통치자 가문 출신이면서도 루스인들에게서 지지를 받았던 스비트리하일로에게 볼르인 공령의 통치를 허용해 준 일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볼르인을 스비트리하일로와 그의 추종자들인 우크라이나의 공들, 영주들의 수중에 남겨 놓고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통치를 미성년자인 카지미에쉬의 이름으로 자기네 수중에 장악한 리투아니아 귀현들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요소집단(要素集團, элемент)에게는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가장 광대하고 강력하고 가장 영주적(панский) 성격이 강하여서, 전 지

92) Грушевский(1996), 312.

역이 공들과 영주들의 소유지(포메스치예)와 성, 지택으로 뒤덮여 있는 공령이던 볼르인은 이제 “자체의” 공에 의한 통치를 받으며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⁹³⁾

흐루셰프스키의 ‘우크라이나 요소’라는 용어는 ‘우크라이나를 구성할 요소를 가진 잠재세력’이라고 풀 수 있다. 이 용어는 목적론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 이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없었고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도 아직 없었다. 그런데 흐루셰프스키는 리투아니아 지배층이 루스인들을 차별하면서도 이들이 따로 살도록 방치함으로써 여기서 미래의 우크라이나 민족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루스의 여러 세력들 중에서 리투아니아에 대해 독자성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아직 근대적 의미의 우크라이나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후일 우크라이나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잠재적이고 기본적인 인자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이 우크라이나 요소 집단이라는 말을 이 다음에도 여러 차례 쓰고 있는데, 폴란드 지배 아래서는 폴란드에 맞서서 루스인들의 삶과 문화, 특히 정교신앙을 지켜내려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동서 우크라이나의 연결성 강조

흐루셰프스키의 이러한 목적론적 사고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 동서 우크라이나의 연결성, 단일성에 대한 강조이다. 그는 옛 키예프 루스의 동북부 지방과 서부 지방을 구분하여 서부지방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구성부분으로 확신하는 반면 동북부 지방은 이 구성에서 제외해 버린다. 동북지역이 외부자로 여겨지는 반면 서부지역은 키예프 루스의 적통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 공들의 통치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즈달 공들이 키예프 공과 키예프 자체의 힘과 중요성을 아래에서부터 분쇄해 버렸어도 그들의 계획은 단지 부분적으로밖에 실현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키예프에 최후의 혹독한 타격을 가하였던 바로 그때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서쪽에서 새로운 정치적 세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세력은 키예프처럼 우크라이나 전체를 통일하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그 당시 더 강력하고 주민들도 더 많이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서부 지방에서 독립적인 국가 생활이 백 년 이상이나 더 지속되는 것을 보장해 주었다.⁹⁴⁾

93) Грушевский(1996), 157.

동서 우크라이나가 서로 연결된 우크라이나의 통합적 부분들이라는 것은 흐루셰프스키에게는 키예프 시대 이래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흐멜니츠키 봉기 이후 소속이 달라져 버린 동부 우크라이나와 서부 우크라이나를 단일체로 파악하고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할 뿐 아니라, 폴란드 분할 이후 또 다시 소속이 바뀌게 된 오스트리아령 우크라이나, 특히 할리치나와 러시아령 우크라이나(드니프로 우크라이나)의 단일성과 상호연결성도 강조하고 있다.

1569년 볼르인, 키예프, 드니프로 강 유역 지역이 폴란드에 합병되면서 동부 우크라이나와 드니프로 강 유역 지역이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주민들 뿐 아니라 폴란드 정부 자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서야 이 변화의 여파를 느낄 수 있었다.⁹⁵⁾

흐루셰프스키는 19세기 전반, 오스트리아령이던 할리치나의 젊은 우크라이나 신학자들이 러시아령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아 전개한 문필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들은) 또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국경 양쪽에 흩어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일성을 생생히 의식하여 우크라이나 모델에 근접한 작품을 쓰면서 문학 활동 속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도 했다.⁹⁶⁾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 특히 러시아령 우크라이나와 할리치나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을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키예프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그 자신이 할리치나의 르비브 대학교수로 부임한 후 두 지역 우크라이나인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영향을 강화시켰다. 이 책에서는 두 지역의 상호교류를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94) Грушевский(1996), 112.

95) Грушевский(1996), 190-191.

96) Грушевский(1996), 518.

벨라루스에 대한 동질감

흐루셰프스키의 역사서술에서 우크라이나인들 외에 호의적인 서술의 대상이 되는 인민은 벨라루스인들이다. 벨라루스에 할애된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벨라루스 인민이 거론되는 경우에는 그는 우크라이나 인민과 벨라루스의 인민을 같은 차원에 놓고 서술한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애국자들은 자신들의 민족성(народность)의 이
 토록 참담한 쇠락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지켜보았다.⁹⁷⁾

이미 1530년대와 1540년대에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소시민들은 자신들
 의 조직을 위한 합법적 형태를 갖추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민
 족세력을 합법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역사가 오랜 형제단 조직을 이용했다.⁹⁸⁾

벨라루스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지배한 적이 없고, 벨라루스 인민과 우크
 라이나 인민이 문화적, 언어적으로 거의 유사하며 거의 비슷한 운명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벨라루스 인민과 우크라이나 인민을 따로 칭함으
 로써, 벨라루스 인민을 우크라이나 인민과 동일시하거나, 두 인민의 통합을
 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에 대해 거리두기

같은 동슬라브 민족이라 할지라도 벨라루스인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는 상
 반되게, 흐루셰프스키는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다. 그는 키예
 프 루스 시기에 키예프 공령과 마찬가지로 류리코비치들이 통치하고 있던 수
 즈달 공령을 비롯한 동북부 지역을 키예프 루스에서 제외하고 이를 외부자로
 부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관점에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정치체에는 루스 혹은 그 변형인 러시아(루스의 땅)라는 나라 이름을 인정해
 주고자 하지 않는다. 루스의 형용사이자 러시아의 형용사이기도 한 루스키
 (русский)라는 말을 그는 오로지 우크라이나-루스를 위한 형용사로만 사용하고자
 한다.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전(全) 루스의 군주(государь вся Руси)’⁹⁹⁾라

97) Грушевский(1996), 223.

98) Грушевский(1996), 227. 이 부분은 다소 견강부회적이다.

99) 졸탄의 연구로는 모스크바 공국에서 ‘전 루스의 군주’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440년대 말로서 이반 3세의 부친인 바실리 2세의 화폐에 ‘осподарь

는 칭호를 스스로 채택했고 그 이후 모스크바 대공들이 ‘전체 루스의 대공이자 차르’라는 칭호를 채택하여 공식칭호로 사용하였다. 군주에 따라서는 ‘대(大), 소(小)러시아, 백러시아의 군주’라는 용어도 사용했는데¹⁰⁰, 이 또한 러시아의 차르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옛 키예프 루스의 영역을 이어받았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흐루셰프스키는 표트르 1세가 정식으로 러시아제국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차르가 통치하는 영역에 대해 루스라는 명칭도 러시아라는 명칭도 인정하지 않고 모스크바국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핵심은 모스크바라고 보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도가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옮겨간 이후의 시기를 서술할 때에도 러시아 정부의 정책, 러시아적 특징을 말하고자 할 때 모스크바, 모스크바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음도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유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페테르부르크를 부차적으로 여기고 러시아의 전통적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진 모스크바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비를 더 강렬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민족을 가리킬 때에도 그는 오늘날 통상적으로 혈연적 개념의 러시아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루스키라는 말 대신 대러시아(벨리코 루스키)인이라는 말을 꼬박꼬박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인으로서의 루스키’가 키예프 루스인을 포함한 ‘루스인 일반’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모스크바국-러시아에 대한 대립적 입장 때문에 흐루셰프스키가 러시아와 관련을 가지는 사람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는 모스크바에 저항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вся Руси’ 혹은 ‘осподарь вся русской земли’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그의 주장으로는 이반 3세 시기를 포함한 15세기부터 이반 4세에 이르는 시기에 군주를 뜻하는 칭호는 고수다르(государь)가 아니라 고스포다르(господарь)였다. 그리고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고수다르’형이 ‘고스포다르’형을 밀어내기 시작한 후 1645년에 가서야 ‘고수다르’형이 확립되었다. A. Золтан(2002) “К предыстории русск. «государь»”,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Киевская и Московская Русь*, T. 2, Кн. 1, С. 577-585.

100) 보흐단 흐멜니츠키와 맺은 페레야슬라브 협정으로 동부 우크라이나 지방에 대한 상급지배권을 가지게 된 차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는 ‘전체 대(大)로시아, 소(小)로시아(Вся Великая и Малая Росии)’의 군주라는 칭호를 채택했다.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는 여기서 차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가 ‘루스’라는 옛 형태가 아니라 ‘로시아(Росия)’라는 새로운 형태의 나라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로시아는 루스의 비잔티움형 명칭이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Соловьёв 2002: 491, 493).

우크라이나인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경향

호루셰프스키는 인민주의적 성향이 강한 지식인이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주적이지 못한 상황에 놓인 데 대해 종종 지도자들의 판단착오, 무능, 우유부단, 이기심 등을 가차없이 비판했던 것이 사실이다. 호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인 지배계층의 무능이나 잘못된 인식, 부패에 대해 거리낌 없이 비판하였다. 민중의 삶을 가장 중시한 인민주의자답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인과 비우크라이나인의 갈등이 문제가 될 때에는 호루셰프스키는 지나치게 우크라이나인을 옹호하고 어떤 일의 책임을 외부로만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컨대 무능하고 부패한 우크라이나 정교 성직자들에 대한 르비브 형제단의 정화운동을 지원하고자 했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구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과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나 형제단 운동의 성공은 사제단과 주교들의 심각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았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대로 총대주교들이 사제단과 주교들과 관련하여 르비브 형제단에 부여해 준 지극히 광범위한 권한은 매우 위험하고도 불필요한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형제단은 사제단과의 전혀 불필요한 충돌에 말려들게 되었고, 정교회 주교들이 가톨릭 성직자단에 보호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도 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탓이기 때문이다.¹⁰¹⁾

만면 호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정교회가 폴란드 지배세력에게서 교회 통합을 강요당했을 때 정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이 이에 투항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온건하고 심지어 이해와 동정이 서린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어떠한 교회 권력의 간섭도 받지 않았던 정교회 주교들에게 비잔티움 교회의 이런 혼란과 총대주교가 시작한 형제단의 감시 같은 이 모든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이런 모든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폴란드 정부와 가톨릭 사제들이 오랫동안 손짓하며 부르고 있던 길로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곧 총대주교의 관할에서 벗어나 로마 교황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¹⁰²⁾

루스 정교회는 자체 개혁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세력이었을까? 호루셰프스키의 이러한 서술은 마치 못한 자식을 무조건하고 감싸려 드는 부모의 성공적이지 못한 노력 같아 보인다. 그리고 그가 좁은 의미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성향도 은근히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101) Грушевский(1996), 231.

102) Грушевский(1996), 232.

5. 우크라이나인에 의한,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우크라이나인의 역사

흐루셰프스키의 역사연구와 서술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바쳐졌다. 대학생 시절부터 인민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연구했던 그는 점차 우크라이나가 독자적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작업으로 나아갔다. 그의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대중이 이 역사에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집필된 것이었다. 이 책에서 흐루셰프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동슬라브 3개 민족의 일원으로서 다루기보다 비잔티움-몽골-리투아니아-폴란드 등 여러 외국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으로 존속해 온 민족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문화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정교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러시아 정교와는 구분하여 다루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민족적 정체성에서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코자크 집단이 그의 역사서술에서는 민족정체성을 수호해 온 핵심집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그는 ‘흐루셰프스키식 우크라이나 민족’을 형성해 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흐루셰프스키는 그의 역사서술 속에서 역사적 우크라이나 땅과 역사적 우크라이나인의 테두리를 만들었으며 그가 만든 테두리가 곧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가와 우크라이나 인민을 형성해 낸 역사가인 것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우크라이나 독립선언으로 나아가는 데는 그의 역사해석이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시기에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길 아래 당국의 불신을 받았던 흐루셰프스키는 소련 해체 후 독립한 우크라이나에서 건국의 으뜸가는 공로자로 여겨지고 있다. 역사학이 민족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시기에 바로 그러한 역사학의 역할에 충실했던 인물이 흐루셰프스키였다. 우크라이나 독립론의 학술적 바탕을 제공했던 그의 목적론적 역사해석은 20세기 말- 21세기에 이르러 우크라이나의 통합을 위한 담론이 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가변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동서 우크라이나의 통합성을 강조했던 그의 역사해석이 앞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

- Грушевский, Михайл(1894) *Барское старство: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Киев: Тип. имп. ун-та св. Владимира.
- _____ (1906) *Очерк истори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Издание 2-е, дополненное, С.-Петербург: Типография товарище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ая польза».
- _____ (1911) *Очерк истори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Издание 3-е, дополненное, Киев: Типография 1-й Киевской Артели печатного дела.
- _____ (1996)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Киев: МПП «Левада».
- Грушевський, Михайло(1894) “Вступний виклад з давньої історії Русі, виголошений у Львівським університеті 30 вересня 1894 р.”, *Записки Наукового товариства імені Шевченка*, Т. IV, С. 140-150.
- _____ (1903) “Звичайна схема рускої історії й справа раціонального укладу історії східного слов'янства”, <http://litopys.org.ua/hrs/hrs02.htm>(검색일: 2013.09.25).
- _____ (1918) *Ілюстрована Історія України: Правдивий передрук краєвого вид*, Вінніпег: Накл. "Канадійського фермера".
- _____ (1981) *Автобіографія Михайла Грушевського з 1926 року*(1926), New York; Munich; Toronto: Українське Історичне Товариство.
- _____ (1981) “Як я був колись белетристом”, *Автобіографія Михайла Грушевського з 1926 року*(1926), С. 42-47.
- _____ (1991-2000) *Історія України-Руси*, Київ: Наукова Думка.
- Павлов, Н. М.(1905) “Ученый труд господина профессора Грушевского 'Очерк истории украинского народа'”, <http://www.ukrstor.com/ukrstor/pavlov-ocerkgrusevskogo.html>(검색일: 2013.09.20).
- Hrushevsky, Michael(1915) “The Ukrainian Revival”, *Ukraine's Claim to Freedom: An Appeal for Justice on Behalf of Thirty-Five Millions*, New

York: The Ukrainian National Association and The Ruthenian National Union.
 _____(1941) *A History of Ukraine*, edited by O. J. Fredericks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Reprint Archon Books(1970).

- 2차 자료 -

- 겔너, 어네스트(1981) 「근대화와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백낙청
 엮음, 창작과 비평사, 127-165쪽.
- 구자정(2009) 「“우크라이나-루시의 역사(Istoriia Ukrany-Rusy)” 미하일 흐루쉐
 프스끼(Mykhailo Hrushevsky)」, 『중소연구』 33:4, 223-228쪽.
- 백낙청 엮음(1981)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 플라토노프, 세르게이 표도로비치(2009) 『러시아사 강의』1, 김남섭 옮김, 나남.
- 한정숙(2004) 「키릴-메토디우스 형제단과 근대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체성 - 형
 제단 지식인들의 담론 구성을 중심으로 -」, 『러시아연구』 14:2, 389-430쪽.
- Золтан, А.(2002) “К предыстории русск. «государь»”,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Киевская и Московская Русь*, Т. 2, Кн. 1, С. 554-590.
- Литвина, А. Ф. и Ф. Б. Успенский(Сост.)(2002)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Киевская и Московская Русь*, Т. 2, № 1, Москва: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 Миллер, А. И.(2000) *Украинский вопрос в политике властей и русск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мнении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здательство
 «Алетейя».
- _____ (2001) “Предисловие: 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Грушевский и его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М. С. Хрушевский,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Украины*, Москва: Сварог и К, С. V-XI.
- Синяков, С. В.(2011) “Украинская история как простран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ІСНИК НТУУ — “КПІ”. Філософія. Психологія. Педагогіка*,
 Вип. 2, С. 151-158.
- Соловьёв, А. В.(2002) “Великая, Малая и Белая Русь”, А. Ф. Литвина и Ф. Б.
 Успенский(сост.) *Из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Киевская и Московская
 Русь*, Т. 2, Кн. 1, Москва: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С. 479-495.
- Винар, Любомир(1966) “Життя і наукова діяльність Михайла Грушевського:

- Джерела до біографії”, *Український історик*, nos. 1-2, С. 15-31.
- Шаповал, Юрій(2000) “Загадка смерти Михайла Грушевського”, *На службі Кліо: Збірник наукових праць на пошану Любомира Романа Винара, з нагоди 50-ліття його наукової діяльності*, Kyiv; New York; Toronto; Paris; L'viv, С. 266-287.
- Doroshenko, Dmytro(1957) *A Survey of Ukrainian Historiography*: Olexander Ohloblyn, *Ukrainian Historiography 1917-1956*, New York: The Ukraini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in the U.S. Inc.
- _____ and Oleh Gerus(1984) *A Survey of Ukrainian History*, Winnipeg: Humeniuk Publication Foundation.
- Eley, G. and R. G. Suny(eds.)(1996)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roch, Miroslav(1996) “From National Movement to the Fully-Formed Nation: The Nation-Building Process in Europe”, in G. Eley and R.G. Suny(eds.)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60-69.
- Kappeler, Andreas, Z. E. Kohut, F. E. Sysyn, and M. von Hagen(eds.)(2003) *Culture, Nation and Identity: The Ukrainian-Russian Encounter, 1600-1945*, Edmonton; Toronto: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 Press.
- Kasianov, Georgiy and Philipp Ther(eds.)(2013) *A Laboratory of Transnational History Ukraine and Recent Ukrainian Historiography*, Budapest; 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 Kohut, Zenon E.(2003) “The Question of Russo-Ukrainian Distinctiveness in Early Modern Ukrainian Thought and Culture”, in A. Kappeler, Z. E. Kohut, F. E. Sysyn, and M. von Hagen(eds.) *Culture, Nation and Identity: The Ukrainian-Russian Encounter, 1600-1945*, Edmonton; Toronto: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 Press, 57-86.
- Magocsi, Paul Robert(1998) *A History of Ukrain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Plokhyy, Serhii(2005) *Unmaking Imperial Russia: Mykhailo Hrushevsky and the writing of Ukrainian history*, Toronto;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_____ (2006) *The Origins of the Slavic Nations: Premodern Identities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ymak, Thomas M.(1987) *Mykhailo Hrushevsky: The Politics of National Culture*,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Velychenko, Stephen(1992) *National History as Cultural Process: A Survey of the Interpretations of Ukraine's Past in Polish, Russian and Ukrainian Historical Writings From the Earliest Times to 1914*, Edmonton: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 Press.
- Wynar, Lubomyr R.(1988) *Mykhailo Hrushevsky: Ukrainian-Russian Confrontation in Historiography*, Toronto; New York; Munich: Ukrainian Historical Association.

- 인터넷자료 -

- “Михаил Грушевский”, <http://www.rulex.ru/01040380.htm>(검색일: 2013.09.12).
- Грушевський, “Громадський рух на Україні-Русі в XIII віці”, <http://www.m-hrushevsky.name/uk/History/1892/GromadRuxNaVkrRusi13st/V.html> (검색일: 2014.11.05).
- “Famous Ukrainians of all times”, <http://ratinggroup.com.ua/en/products/politic/data/entry/14005/>(검색일: 2014.11.12).

르비브의 흐루셰프스키 기념박물관:

<http://www.karpaty.info/en/uk/lv/lw/lviv/museums/hrushevsky>(검색일: 2014.11.10).

키예프 흐루셰프스키 박물관 사이트:

http://www.kartka.com.ua/dovidnik/kultura/musei/museej_grushevskogo(검색일: 2014.11.10).

흐루셰프스키 박물관 개관식 관련:

<http://www.president.gov.ua/en/news/4589.html?PrintVersion>(검색일: 2014.11.10).

Abstract**Shaping the Ukrainian Nation Through Historical Writing:
M. Hrushevsky's *Illustrated History of Ukraine*(1911) and the
Question of Ukrainian Identity****Hahn, Jeong-Sook***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the Ukrainian national identity was at the crossroad: Do they belong to the All-Russian nation or is there a proper Ukrainian nation? The historian M. Hrushevsky devoted his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krainians' identity as an individual nation distinct from the Great Russians. His *Illustrated History of Ukraine* was written to make Ukrainian history accessible to broad public. Here he considers the Ukrainians not so much as one of the three East Slavic nations than as a nation that has its own existence in the multiple relations with various foreign powers including the Byzantine Empire, Poland and Russia. In his view the inheritance right of the Kievan Rus' is recognized for Ukraine and Lithuania and denied to Russia. His interpretation of the Ukrainian history is imbued with teleological thinking. He thinks that there were Ukrainian 'elements' from the early period. Culturally he sees the Orthodox faith as the fundament of the Ukrainian national identity, bu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the Ukrainian and the Russian Church organizations. From the time of the Polish rule, Cossacks are esteemed as the leading group of the Ukrainian nation as the bearer of its statehood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For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most part of Ukraine was under Russian rule, Hrushevsky thinks that the Ukrainian language serves as indicator for Ukrainian identity. Throughout the work he emphasizes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Eastern Ukraine and Western Ukraine and the unity of them. Thus he shaped the 'Ukrainian nation à la Hrushevsky'.

Key words: Khrushchewsky, *History of Ukraine*, Orthodox Church of Ukraine, Ukrainian Cossacks, Ukrainian National Identity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 정 숙

독일 튀빙겐 대학에서 러시아-동유럽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장을 역임했다(1998-2002). 러시아사, 우크라이나사, 서양사, 여성사에 관해 여러 편의 논문, 역사, 저작을 발표했다. 흐루셰프스키의 『삽화로 보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번역 완료하여 곧 출판할 예정이다.

Hahn, Jeong-Sook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main research interests are history of Russia, history of Ukraine, history of women. She is author of many articles and books on Russian and Ukrainian history, including articles on Russian peasantry, Russian and Ukrainian intelligentsia, women's movement. She translated Taras Shevchenko's *Kobzar* into Korean.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4. 9. 30
논문심사일:	2014. 10. 10 ~ 10. 31
심사완료일:	2014. 11. 10